

하루를 시작하며



허 경 자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가 취임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미래 신산업 육성의 정책과 실무를 이끌 사령탑이다. 막중한 그의 역할에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제주도 부지사 직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선 초기 의회나 언론, 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전통적 정부부지사를 시작으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보완적 요소로 환경부지사가 등장했다. 2010년에는 지역경제까지 아우른다며 환경·경제부지사로 확대됐고, 그 후 원희룡 도정과 오영훈 도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에게 바란다

정은 다시 정부부지사 직제로 회귀하며 12년을 보냈다. 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부지사의 명칭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위성곤 도정은 기후경제수도를 핵심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기후경제부지사 직제는 그 명칭과 역할 면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가 당면한 환경과 경제의 양대 축을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과 실질적 대응력이 없다면 그 누가 와도 기후경제부지사란 타이틀이 갖는 실질적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에너지 전환과 이를 통한 제주형 기후경제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과 분산에너지 특구의 연계점을 찾아내고 안정적 에너지 전환 모델을 주도적으로 완성해 내야 한다. 전력공급차원의

단순한 에너지전환을 넘어 도민소득과 녹색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실질적 이익 생산 구조의 전환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기후에너지국과 분산에너지과 등 전담 행정조직의 업무 총괄로 단위 정책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 환경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추진’과 ‘2035탄소중립 실현’의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선제적 보완으로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 설계에 구심점이 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 정책은 개발과 보존이 상충한다. 에너지 전환 및 성장산업 추진에서의 사회적 갈등도 언제나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및 조정이 오롯이 기후경제부지사의 몫이다. 그러나 여기엔 도민 혼란과 질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기후경제부지사 직제의 자기모순성이 있다. 인프라 확장과 산업기반 조성 등 성장과 맞물려 야기되는 자연훼손 논란은 언제나 개발과 보존의 양대 축에서 시작되는데, 이를 판단해야 할 실질적 책임과 권한도 경제와 기후를 아우르는 기후경제부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네팸의 대홍수로 세계가 슬픔에 빠졌다. 말로만 들던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위기 걱정들이 예측불허의 재앙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제주도 역시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기후변화 대응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민선 9기의 어려운 역할을 짊어진 그에게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낸다.

사설

전국체전 앞뒤 칼 빼든 바가지요금 근절

제주도가 다음 달 16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뒤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바가지 숙박요금과 렌터카 과당 할인 경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맞춰 개정된 법령을 적용기로 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는 최초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린다. 도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체전 종료일까지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전국체전 종합상황

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렌터카 분야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요금·면책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시행 이후 신고요금이 현실화되고 할인 폭도 60% 이내로 제한되면서 비수기의 극단적 할인과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인한 요금 격차가 줄었다. 약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강화된다. 바가지요금은 제주의 대외 이미지를 흐리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전국체전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선수단이 제주를 방문하는 만큼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도 가동한다. 전국체전 종합상황

열린마당

작은 원칙에서 시작하는 청렴

부 제 영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직결된다. 처음에는 청렴이라고 하면 다소 거창한 말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접하다 보니 청렴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하는 자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안내하는 것 역시 청렴의 한 모습일 것이다.

우선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한다. 앞으로 업무에 익숙해지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업무가 많아지고 바빠지더라도 편의를 위해 원칙을 쉽게 넘기지 않고, 항상 내 행동이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우리’ 의미 느끼는 추석 되길”

고의숙 교육감 추석 인사

“오름 정상 조망권 확보”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2일 “‘우리’의 의미를 느끼며 웃음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추석 맞이 인사.

고 교육감은 이날 추석 인사말을 내고 “기나긴 폭염에 모두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나의 편의를 양보하면서 아이들과 이웃을 위해 헌신의 맘을 흘리셨다”며 “덕분에 내일의 기대를 품고 추석을 맞게 됐다”고 도민과 교육공동체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

이어 “가정과 지역에 더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제주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고, “연휴에도 노고를 다하실 노동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며 제주지역 노동자에게 인사.

김지은기자

○…서귀포시가 지난 8월에 고군산 정상부 1.26ha에 대한 조망권 확보 속아배기를 실시, 주요 조망지점의 수목을 선택적으로 정비해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반기에 대수산봉을 대상으로 조망권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탐방객이 많고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오름을 우선 선정해 조망권 확보사업을 확대해 오름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사업을 전개할 방침.

강원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오름 정상부 조망권 확보 사업은 무분별한 수목 제거가 아닌 오름의 자연경관과 산림을 함께 고려한 선택적 속아배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금탁기자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